

오늘의 해양쓰레기

박카스 광고 주인공들과 바다 속 낚시쓰레기 실태 조사를 위한 비대면 워크숍 진행

최근활동_

- 1 박카스 광고 주인공들과 바다 속 낚시쓰레기 실태 조사를 위한 비대면 워크숍 진행
- 2 전국 학생 미세플라스틱 조사 체험활동이 시작되다
- 3 충청남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결의대회'에 마련된 오션의 해양환경부스

연구동향_

- 1 제375회 세미나 : 플라스틱 재활용 - 아시아의 정책과 모범 사례

이 달의 해양환경 뉴스_

공지사항_

- 1 2020 '국제연안정화의 날' 기념 전국바다대청소 공지
- 2 경남 수중협회 해양환경보호 캠페인
- 3 낚시쓰레기 수증정화 활성화 사업을 후원해준 위시컴퍼니
- 4 '클린 스웰 한국어 안내서' 제작을 후원해준 한밭미래자원(주)
- 5 환영합니다 - 두광재, 이주언 회원님
- 6 OSEAN 세미나 2020년 8월 공지
- 7 2020년 6월 회비 납부하신 분들입니다



박카스 광고 주인공들과 바다 속 낚시쓰레기 실태 조사를 위한 비대면 워크숍 진행

이은경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eklee@osean.net

2020 한국 국제연안정화 특별이벤트 온라인 중계 공지

낚시쓰레기 수중정화 활성화 워크숍

- 주최/후원: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위시컴퍼니
- 일시: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오전10:40~오후17:00)
- 장소: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소회의실

온라인 실시간 중계 참가 신청
osean@osean.net로 메일 주시면 온라인 회의실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 배경
 - 낚시쓰레기는 양은 적지만 해양생물 등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힘.
 - 한국 연안에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준 쓰레기의 70% 이상이 낚시쓰레기 있음(Hong 등, 2013)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OSEAN)에서 부산, 경남, 경기 등 주요 낚시터 주변의 쓰레기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아직 수중의 낚시쓰레기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는 없음. 강릉 지역 자원 봉사 스쿠버다이버 조사에 따르면 수중의 낚시쓰레기도 심각한 상황임.
 - 대표적인 해양쓰레기 시민 참여 청소 및 조사 활동인 국제연안정화를 통해 수중 낚시쓰레기의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목적
 - 낚시쓰레기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 스쿠버다이버의 국제연안정화 참여를 통한 환경문제 인식 증진
 - 한국 국제연안정화에서 수중쓰레기 정화, 조사 및 안전관리 발전

진행 시간표

시간	내용	진행자	단체
10:40~10:50	낚시쓰레기 수중정화 활성화 사업 소개	이종영 연구소장	오션
10:50~11:00	참가자 소개 및 인사	이종영 연구소장	오션
11:00~11:30	해안낚시쓰레기 조사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이종수 연구원	오션
11:30~12:00	수중낚시쓰레기 조사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김용규 대표	오션 카인드
12:00~13:30	점심식사		
13:30~15:00	회의- 조사 지역 선정 조사팀 구성 시범조사 매뉴얼 보고서 초안	김용규 대표	오션 카인드
15:00~17:00	강원지역 시범조사 지역 사전 방문	김용규 대표	오션 카인드

지난 7월 17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녹색도시체험센터 소회의실에서 ‘낙시쓰레기 수증정화 활성화 워크숍’이 열렸다.

이 행사는 박카스 광고의 주인공인 오션카인드 김용규씨와 문수정씨 부부와 함께 기획한 것이다. 오션카인드에서는 그동안 강릉의 바다 밑에서 수없이 많은 낙시쓰레기를 수거해 왔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낙시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활동이 절실하던 차에 위시컴퍼니(WISHCOMPANY)의 후원으로 작은 행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낙시쓰레기는 양은 적지만 섭취, 얽힘을 통해 해양생물 등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 홍선욱 대표는 한국 연안에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준 쓰레기의 70% 이상이 낙시쓰레기 라고 논문에 밝힌 바 있다(Hong 등, 2013). 오션은 낙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 지난 2년간 부산, 경남, 경기 등 주요 낙시터 주변의 쓰레기 실태 조사를 하였다. 하지만 아직 수증의 낙시쓰레기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션은 오션카인드와 협력하여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전 과정을 중계하였다. 강릉 행사장에서는 7명, 전국적으로는 2개 지역 6명이 참여하였다.

오션의 이종수 연구원은 파타고니아 후원으로 오션이 2년 동안 경남, 부산, 경기도 해안가에서 실시한 해안 낙시쓰레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낚시줄과 낚시 바늘이 낙시 쓰레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경남과 부산에서는 73%, 경기도에서는 59%를 차지하였다. 이종수 연구원은 낙시 쓰레기가 일으키는 피해, 특히 생물피해에 대한 낙시인들의 인식이 높아져야 하고 낚시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서 오션카인드의 김용규 대표가 2020년 올해 5회에 걸쳐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남해 1리 해변 방파제에서 수증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는 수증 낙시쓰레기도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수거한 쓰레기 중 낚시용품이 30%를 차지하였는데 1위를 차지한 플라스틱 파편에 이어 낚시바늘과 낚시 플라스틱 천평(낚시 본 줄에 작은 줄을 추가로 연결하는 장치)이 각각 2, 3위를 차지하였다. 김용규 대표는 수증 정화 활동 때 제한된 시간과 다양한 수증 환경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들려주며 스쿠버들의 안전관리 마련의 시급함도 일깨워주었다.

현재 스쿠버다이버들이 세계 약 600여 지점에서 자원봉사로 수증 조사를 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김용규 대표가 수증 조사하면서 촬영한 영상은 낙시쓰레기로 인한 생물피해를 여실히 보여줘 참가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최근활동

이번 워크숍은 위시컴퍼니의 후원금으로 강릉과 부산의 바닷속 2곳에서 낚시쓰레기를 조사하는 사업의 시작을 알릴 뿐만 아니라 낚시 쓰레기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고민하고 정보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낚시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수중 낚시 쓰레기의 심각성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조사와 결과 분석을 통해 알리고 해결책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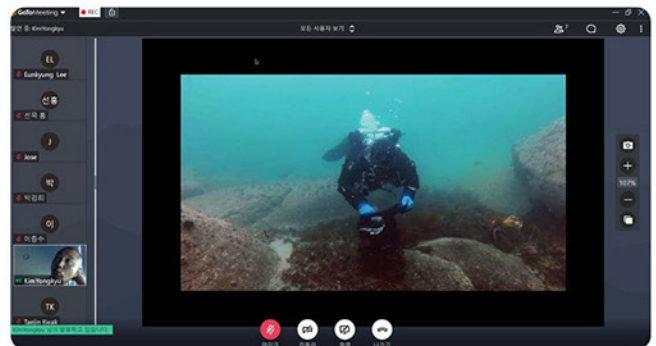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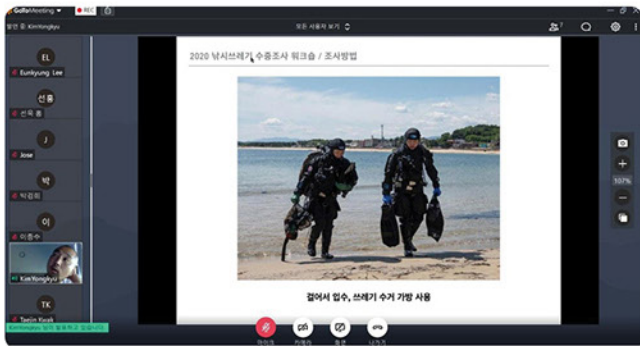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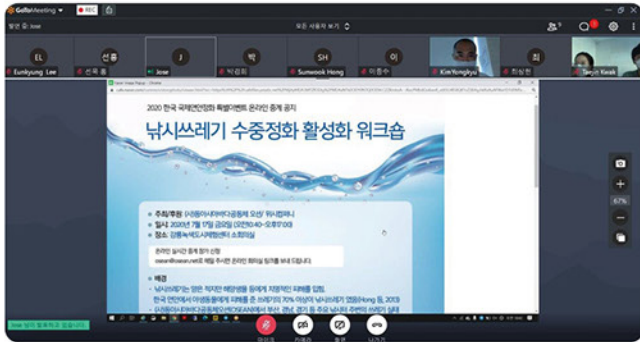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국제연안정화의 날 특별이벤트로서 우리가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바닷속 낚시쓰레기를 좀더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초석이 될 예정이다.



온라인 중계중인 워크숍_1



조사 정점인 남애리 해변 방파제 방문



온라인 중계중인 워크숍_2



오션카인드 김용규(대표)와 문수정 부부
(사진출처: 해양환경공단 사보 해맑은이야기 여름호(76호))

전국 학생 미세플라스틱 조사 체험활동이 시작되다.

정호승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hodorio@osean.net

인천 마시안 해변에서 전국 학생 미세플라스틱 조사 체험 활동 첫걸음 소식

전국 학생 미세플라스틱 체험 프로그램은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과 각 지역 환경단체들과 협력하여, 학생들과 함께 진행되는 지역 환경 조사 체험 활동이다. 전국 학생 미세플라스틱 체험활동에 참여의사를 보내신 박경화 선생님(소속 : (사)한국바다해설사 협회)과 온바다 해양환경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서, 7월 11일 인천 마시안 해변 연안 정화활동(해양쓰레기 줍기)과 미세플라스틱 채집 모니터링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다음은 박경화 선생님이 체험활동을 지도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 점 등을 남긴 후기 글이다.

더운 여름날 학생들에게 미세플라스틱 조사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거리와 의미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글이다. 앞으로 진행할 다른 환경단체와 오션도 이러한 애로사항을 대비하여 보다 나은 미세플라스틱 체험 활동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겠다.

- 편집자 주 -

박경화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해양쓰레기 전문강사
maltta660@hanmail.net

7월 11일, SNS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힌 분과 가족참여자, 마시안 마을 분들과 3개의 조를 나누어, 2개조는 마시안 해변 양쪽을 각각 맡고 신지훈군(중학생)과 신영주양(초등 6), 김시은양(초등 6)은 박경화, 왕미영 바다해설사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채집 활동을 시작하였다.



미세플라스틱 채집 조사 (사진제공: 박경화 강사)

최근활동

해안 쓰레기 줍기 기록 활동 조는 시작과 함께 속도가 나고 있었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을 채집하는 조는 미세플라스틱 채집의 필요성, 채집 방식, 채집활동을 위한 준비 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생각보다 많이 지체되었다. 만조 물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한 시각에 시작된 모래 채집은 모래가 젖어 있어 이만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줍기와 조사기록)은 활동 횟수가 거듭되면서 익숙해져서, 쓰레기를 줍는 동안 서로 왜 이런 쓰레기가 생기는지 원인도 이야기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 캠핑 나온 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현장에서 이어져 정화 활동에 힘이 되었다.

반면, 처음 진행하는 미세플라스틱 체험활동은 모래채집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모래를 말려가며 진행해야 하는 상황들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햇볕이 강한 날 단조로운 활동에 금방 아이들이 싫증을 느껴, 처음에는 눈이 반짝이며 적극적으로 체를 치던 학생들도 점점 힘들어 했다. 이외에도 걸러진 5mm 이상 크기의 플라스틱은 눈에 보이니 분류도 쉽고 이해하기 쉬웠으나, 1mm ~ 5mm 사이의 플라스틱은 분류 확인하는 작업 시 설명을 곁들여도 쉽게 와 닿지 않은 듯 가우뚱하며 어려워 했다.

우여곡절 끝에 미세플라스틱 채집은 끝이 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때마다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단조로워 금방 싫증을 느끼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할지 고민이 된다. 조사 결과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아이들에게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결과물을 아이들로 하여금 확인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와 같은 문제라 생각한다.

다음 달 활동에 대한 걱정이 벌써부터 생겼다. 자꾸만 고민이 깊어지는 미세플라스틱 체험 활동의 첫 경험이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 '걱정은 새로운 방식과 요소를 가미하면 되겠지. 처음부터 잘하고 좋았던 것은 없었으니까. 모두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이 활동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활동이라 확신하면, 점차 익숙해지고 의미도 자연스럽게 부여 받게 될 것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한다. 다음 달 활동은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을 방문하여 다시 한 번 우리의 활동을 점검하고, 미세플라스틱 체험 활동의 더 나은 방식을 찾고자 꼼꼼히 점검하기로 계획해본다. 우리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충청남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결의대회'에 마련된 오션의 해양환경부스

이은경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eklee@osean.net

지난 7월 15일 충청남도 서산시 중리어촌체험마을에서 충청남도 주최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오션은 해양환경 부스, 김정아 작가의 바다쓰레기 작품 전시 부스 그리고 오션의 해양쓰레기 전문강사인 김동은 강사의 허니랩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다음은 오션의 해양환경 부스를 맡아 진행해준 정임철 해양쓰레기 전문강사의 참가 후기 글이다.

- 편집자 주 -

정임철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해양쓰레기 전문강사
365hana@naver.com

7.15일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 중리어촌체험마을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충남도는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충남형 해양신산업 역점 과제로 선정, 작년에 정부에 국가사업 신청을 하였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되어 현재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가로림만 생태 자원의 중요성 홍보, 해양정원 조성 국민적 공감대 확산, 성공적인 국가사업 발판 마련과 함께, 220만 도민의 염원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고, 행사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 군수, 시민과 어업인 등이 참여해 대회사, 특강, 응원 인터뷰, 결의문 낭독 등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최근활동

특히 충남도는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며, 사업의 성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해양생태 보전활동과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에 주민들이 함께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양환경사진, 체험거리, 홍보 부스 등 전시가 함께하였고,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홍보활동 참여 의뢰가 있어 함께하게 되었다.

행사장 중앙부스에 펼쳐진 오션의 해양환경 관련 홍보물들과 김정아작가의 작품전시는 단연 빛을 발하였다. 관람객들의 눈과 마음으로 다가가는 여러가지 해양쓰레기의 자료들, 작품들, 바다의 현실과 심각성 인식 등 이야깃거리가 되기에 충분하였고 참석자와 행사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칭송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

행사는 '충남도민들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통해 가로림만의 건강한 해양 환경을 지키고, 수산자원이 회복되며, 가로림만이 치유와 화합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의로 마무리되었고 행사 후에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깨끗한 가로림만 만들기' 연안정화 활동을 진행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만들기에 노력하는 등 충남도의 활동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아름다운 자연생태가 살아 숨쉬는 이곳, 가로림만. 오래오래 잘 보전되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함께 약속해 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



김동은 강사의 허니랩 체험 부스 (사진제공: 김동은 강사)



오션의 해양환경 부스_1 (사진제공: 정임철 강사)



오션의 해양환경 부스_2 (사진제공: 정임철 강사)



오션의 해양환경 부스_3 (사진제공: 정임철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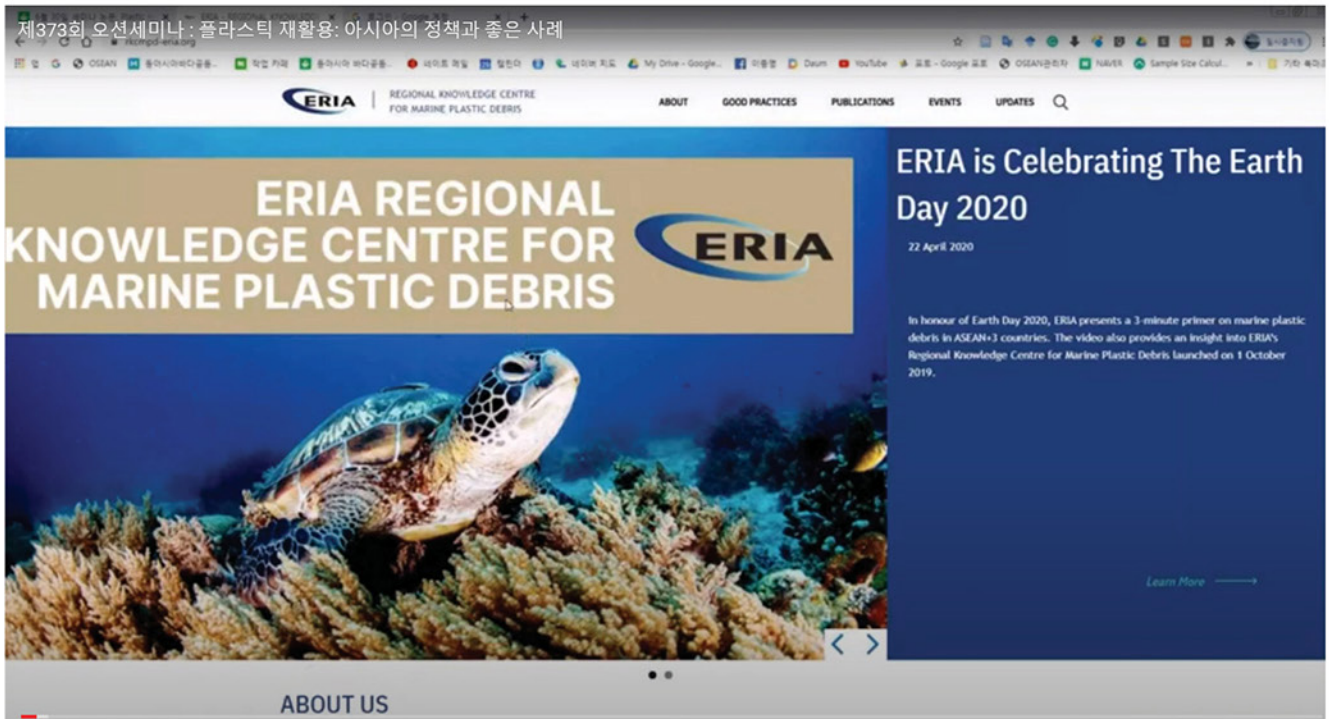


김동은 강사의 허니랩 체험 부스 (사진제공: 김동은 강사)

제375회 세미나 : 플라스틱 재활용 – 아시아의 정책과 모범 사례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 연구소장
jmlee@osean.net

플라스틱 재활용에서 고려해야할 조건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좋은 사례들 소개



2020년 6월 30일 제375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 아시아의 정책과 모범 사례'라는 짧은 보고서를 다뤘다.

원문

Michikazu Kojima, 2019, Plastic recycling: policies and good practices in Asia. <https://rkcmpd-eria.org/publicationsdetails.php?pid=15>

요약문 번역

플라스틱에 대한 순환 경제의 필요성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는 전 세계 환경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많은 국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도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강화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에서의 모범 사례를 포함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토의한 내용

1. 플라스틱 재활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이 보고서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1) 플라스틱의 종류와 적용할 재활용 기술, 2) 제품의 디자인, 3) 수집 프로그램: 발생원에서 분리 배출, 4) 운송 비용 절감, 5) 재활용 생산품 수요 보장, 6) 화학적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7) 확대 생산자 책임 제도, 8)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제 교역 등.

2. 아시아의 플라스틱 모범 사례들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은행(Waste bank)에서는 재활용이 잘되는 깨끗한 페트병을 사람들이 분리해서 가져오도록 차별화된 가격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다. 태국의 왕파닛(Wongpanit)이라는 고물상 체인점에서도 역시 투명한 매입 가격 공개로 질 좋은 재활용 플라스틱이 수집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우선 실시되어야 하는 정책은 분리 배출이다. 몇 개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날짜를 지정하거나, 혹은 별도의 봉투에 재활용품을 담아서 내놓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션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의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분리 배출 체계의 정립이었다. 물론, 시민들이 분리해서 배출하면 그것이 적절하게 재활용된다는 효능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술, 산업, 행정적인 해법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세미나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9fDKxddeulQ>

1. 2020 '국제연안정화의 날' 기념 전국바다대청소 공지

O·S·E·A·N 동아시아바다공동체
Our Sea of East Asia Network **오션**

2020 국제 연안정화의 날
매년 9월 셋째 토요일




안녕하세요!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국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 행사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하여 전 세계의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바닷가, 물가, 공원 등에서 쓰레기를 줍고 기록하는 행사입니다.
학교, 단체, 가족, 개인, 누구나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에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행사 준비를 원하시는 분은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행사 홍보물 등을 보내드리고, 필요하면 행사 기획과 준비도 도와드립니다.

전국 행사를 함께 준비할 공동 주최, 후원 기관도 찾고 있습니다.
한국 국제연안정화의 발전에 함께 하고 싶은 기관, 단체, 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0년 7월 20일
국제연안정화의 날 한국 코디네이터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이 종 명 올림



♥ 💬 📍

#국제 연안정화의 날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클린 스웰 #Clean Swell #Ocean Conservancy #해양 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53020)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3-57, 다림솔카운티 101동 210호
전화 055-649-5223, 5224 / 팩스 0303-0001-4478
E-mail osean@osean.net / Homepage www.osean.net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
Korea Marine Litter Institute

● 행사 추진 주요일정

일자	주요 내용	비고
6월 25일	행사공지(이메일, 공문)	OSEAN → 공동주최 기관, 기타 단체, 개인 등
7월 24일	참가 신청서 취합(1차)	공동주최 기관 → OSEAN 지역주관 단체 → OSEAN
7월~8월 중	지역별 행사 책임자 교육 (권역별 순회, 예정)	지방청, 자치단체, NGO 등
8월 3일	홍보물 제작, 협찬품 취합 완료	OSEAN
8월 4일	행사 신청 마감 참가자 규모 및 홍보물 수요 파악 인증서 수여자 명단 취합	OSEAN
8월 10일	행사자료 발송 - 조사카드, 리플렛, 인증서 등 - 행사 결과 취합 및 보고 방법	OSEAN → 지역 주관 단체
8월 중	수중정화 활성화 워크숍 개최	스쿠버 단체(위시컴퍼니 지정후원)
9월 14일	보도자료 배포	OSEAN
9월 18일	해양수산부 및 지방청 기념식(안)	중앙행사 및 지방청 행사
9월 19일	지역별 행사 개최	지역 행사 일정은 실정에 맞춰 조정(연중 개최 가능)
10월 10일	행사 결과 취합 완료 - 참가자 수, 청소한 해안 길이, 수거한 쓰레기 양(개수, 무게), 조사카드, 생물피해 사례, 언론보도 사례 등	지역주관단체 → OSEAN (수협 등 전국행사 공동주최단체는 자체 취합 후 OSEAN 제공)
11월 중	전국 결과 종합 보고	OSEAN → Ocean Conservancy
12월 중	한국 행사 결과보고서 발간 및 봉사자 감사의 날 행사 개최	OSEAN
2020년 6월	전 세계 결과보고서 발간	OSEAN

2. 경남 수중협회 해양환경보호 캠페인

안전한 수중활동 및 수중쓰레기 수거 환경 캠페인

- 주관 사)한국수중레저협회의 경남지부 ● 일시 2020년 7월 ~ 11월 까지
- 장소 경남협회 수중레저사업장 ● 내용 바다 오염의 주범 플라스틱 등 수중 쓰레기 제거 및 조사
- 대상 수중레저 사업자 및 수중레저 활동자
- 후원 사)한국수중레저협회, 통영해양경찰서, 통영시청,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개 요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수중 활동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수중활동 중 수중 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 바다를 이용하는 수중인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어민들과의 유대 및 아름다운 수중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수중인 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바다 안전한 바다 사고 없는 바다 깨끗한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기대 효과
경남 남해안의 각 수중레저 사업장이 있는 곳 또는 주변 해안에 수중 쓰레기 수거 환경 캠페인을 함으로서 전국에서 참여하는 수중 레저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경남 남해안 전역을 홍보하는 효과와 수중 레저 활동자들의 참여 수가 늘어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경남 남해안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여활동 포상
사)한국수중레저협회, 통영시청, 통영해양경찰서 후원사들은 사업 주체인 경남협회를 지원하고, 경남협회는 참여자 자발적 유도형 포상 제도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각 수중레저 사업자들은 참여자들의 활동 수와 참여 횟수 등을 부록에 기록하여 연도 말에 수중환경캠페인 참여자 격려하는 포상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포상
호흡기 / 부력조절기 / 다이빙 컴퓨터 / 잠수복 (잠수 장비 등)

참여자 활동기록
부록을 만들어 각 사업장에서 기록하여 연말 전에 경남협회에 보고하고 경남협회는 기록자료를 정리하여 연도 말 포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포상 장소는 후원사인 통영해양경찰서 강당을 지원 받아 포상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국제자연영화 조사카드에 기록하고,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 분석하여 시민홍보와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행사문의
사)한국수중레저협회의 경남지부
회장 : 박종이 010. 3552. 7212 ● 홍보 : 이주연 010. 3569. 5522

3. 냉시쓰레기 수중정화 활성화 사업을 후원해준 위시컴퍼니

이은경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eklee@osean.net

캠페인 등 여러가지 형태로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위시컴퍼니(WISHCOMPANY)가 오션의 '냉시쓰레기 수중정화 활성화 사업'에 써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위시컴퍼니에 기업소개와 후원동기글을 부탁드렸습니다.

- 편집자 주 -

스킨케어 브랜드·콘텐츠·커머스기업 위시컴퍼니의 민감성 스킨케어 브랜드 클레어스(dear,Klairs)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신제품이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번 출시한 제품은 단종하는 일이 드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클레어스 대부분의 제품은 세계 40여 개 국가의 주요 유통채널에서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꾸준히 밀리언셀러를 내놓습니다. 작년에는 서플 프레퍼레이션 페이스 토너가, 올해는 프레쉬리 주스드 비타민 드롭이 누적 판매량 100만 병을 넘어섰습니다.

클레어스는 제품을 만들면서 소비자와 제품을 만드는 이들을 배려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브랜드가 마주한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합니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크루얼티프리 Cruelty-Free), 동물성 원료 사용을 지양(비건 프렌들리 Vegan-Friendly)하며 유통 과정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나라에도 수출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브랜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제품 패키지를 만들면서도 같은 맥락의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클레어스는 '서플 프레퍼레이션 언센티드 토너'의 용기 제작 과정에서 낭비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양질의 용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출방식(금형에서 제품을 뽑아내는 공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방식 변경 후 처음 제작된 언센티드 토너에 기부 스티커를 붙여 한 병이 판매될 때마다 5백 원을 기부하는 #TonerForGreener 캠페인을 열어 수익금을 '플라스틱 제로&해양오염 정화' 활동과 '냉시쓰레기 수중정화 활성화 사업' 앞으로 기부했습니다.

공지사항

이외에도 클레어스는 동물실험 반대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고 제품 패키지와 배송 포장재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등 브랜드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제들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션의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을 전해드리며, 앞으로 클레어스의 걸음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클레어스의 활동들

https://www.klairs.com/board/?db=gallery_2

4. '클린 스웰 한국어 안내서' 제작을 후원해준 한발미래자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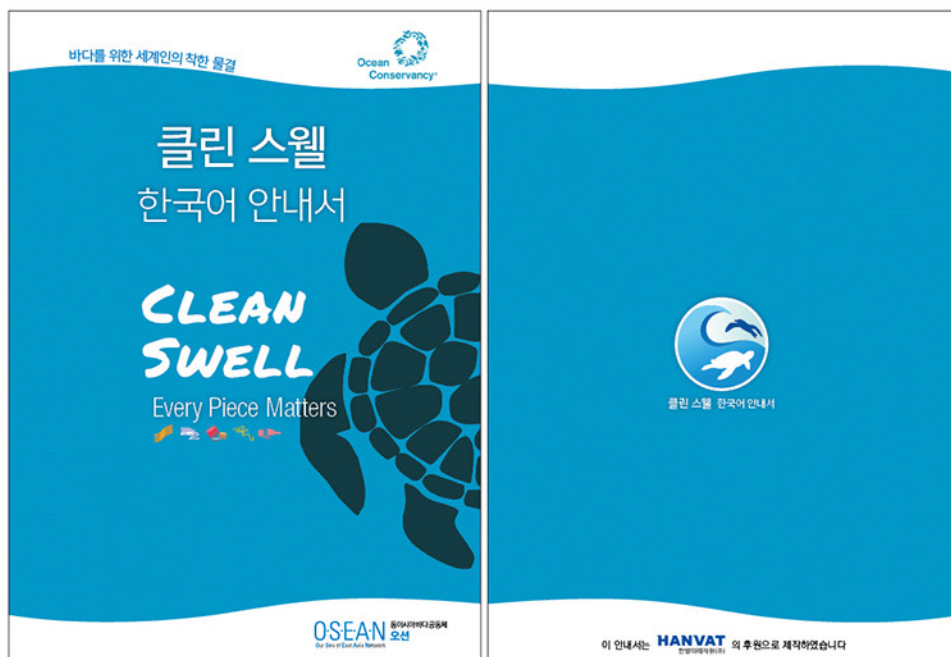
이은경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eklee@osean.net

전세계 시민 자원봉사자의 쓰레기 줍기 활동 기록을 위한 스마트폰 앱인 클린 스웰(Clean Swell)에 한국어 버전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오션은 보다 많은 한국인들의 앱을 이용한 국제연안정화 활동을 위해 '클린 스웰 한국어 안내서' 제작을 기획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발미래자원(주)이 안내서 제작에 써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발미래자원(주)에 소개글과 후원동기글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

한발그룹은 1998년 창립 이래 아스콘, 레미콘, 골재, 리사이클링 등 친환경 건설 기초소재 분야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발미래자원(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 리사이클링 정책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 CO2 저감, 친환경건설소재 개발, 환경보호 등 당사의 경영이념과 부합되는 오션을 알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서 해양환경 보호 활동에 정진해 주시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클린 스웰 한국어 안내서 표지

5. 환영합니다 – 두광재, 이주언 회원님

이은경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eklee@osean.net

이 달의 새로운 회원이 되어주신 두광재, 이주언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이 살수가 있어요.”

두광재 회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욱 더 보람있는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쿠버다이버로 활동중인 이주언이라고 합니다. 수중 쓰레기 조사 활동을 하다보니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언 회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욱 더 보람있는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OSEAN 세미나 2020년 8월 공지

안녕하세요?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350여 회의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여 왔고,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그 결과를 해양쓰레기 관계자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과학 지식과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세미나의 성과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되며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매월 첫 번째 주 세미나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도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또한 오션의 지식 나눔 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 07. 24

홍선욱 두 손 모아

8월 4일 10:30 AM 제 378 회 오션세미나: 인간의 미세플라스틱 소비

(Kieran D. Cox, Garth A. Conventon, Hailey L. Davies, John F. Dower, Francis Juanes, and Sarah E. Dudas, 2019, Human Consumption of Microplastics. Environ. Sci. Technol. 53:7068-7074)

회의실 링크 :

<https://global.gotomeeting.com/join/528124901>

8월 11일 10:30 AM 제 379 회 오션세미나: 집어기구에서 기인한 해양쓰레기가 중앙 지중해의 취약한 저서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Pierpaolo Consoli, Mauro Sinopoli, Alan Deidun, Simonepietro Canese, Claudio Berti, Franco Andaloro, Teresa Romeo, 2020, The impact of marine litter from fish aggregation devices on vulnerable marine benthic habitats of the central Mediterranean Sea. Mar. Pollut. Bullet. 152:110928)

회의실 링크:

<https://global.gotomeeting.com/join/838560109>

8월 18일 10:30 AM 제 380 회 오션세미나: 남빙양 주변의 부유 대형 및 미세 플라스틱 : 남극 일주 탐사의 결과
(Giuseppe Suaria, Vonica Perold, Jasmine R. Lee, Fabrice Lebouard, Stefano Aliani,
Peter G. Ryan, 2020, Floating macro- and microplastics around the Southern Ocean: Results from the Antarctic Circum-
navigation Expedition. Environment International 136:105494)
회의실 링크 :
<https://global.gotomeeting.com/join/573897965>

8월 25일 10:30 AM 제 381 회 오션세미나: 집어기구 감시 : 연안 생태계에서 집어기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
(Iker Zudaire, Josu Santiago, Maitane Grande, Hilario Murua, Pierre-André Adam, Pep Nogués Thomas Collier, Matthew
Morgan, Nasreen Khan, Francois Baguette, Julio Moron, Isadora Moniz, Miguel Herrera, 2018, FAD Watch: a collabora-
tive initiative to minimize the impact of FADs in coastal ecosystems. Working Party on Ecosystems and Bycatch,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회의실 링크 :
<https://global.gotomeeting.com/join/267251821>

〈참가신청〉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osean@osean.net)로 신청해 주세요. 논문을 보내드립니다.

〈결과 정리〉

세미나 과정은 녹화하여 참가자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내용은 한글로 정리하여 월간 '오늘의 해양쓰레기'를 통해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일정 변경〉

부득이한 상황으로 세미나를 열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주 일정이 취소되고 다음 일정은 공지된 대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세미나 하루 전날(월요일) 오후에 게시판에 변경 공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 2020년 6월 회비 납부하신 분들입니다

이은경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eklee@osean.net

오션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연구와 조사 사업을 통해 한발 한발 다가가는 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보태어 주시는 힘을 얻어, 여러분과 함께 가는 시민단체이기도 합니다. 멀리 계시면서도 언제나 믿고 힘이 되어주시는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주)리와인드 (주)부경정공 (주)사인임팩트 (주)지오시스템리서치 (주)코스파
강대석 강동웅 강륜화 강성길 강정훈 고선화 고진필 공필재 곽연희 곽유상 권미양 권정은 김건우
김계영 김경신 김경희 김기림 김기만 김기범 김도근 김동은 김민철 김상문 김석현 김선동 김성우
김소영 김승규 김영애 김영일 김영준 김영춘 김용환 김은정 김정아 김종덕 김종범 김지환 김지혜
김진일 김태훈 김태희 김태희 김해기 김향희 김호상 김호찬 김홍일 김희종 남정호 노현정 로라킴
류종성 목진용 문관용 문 명희 문효방 민병걸 박경수 박경화 박나미 박동민 박명관 박미경 박안수
박영규 박윤경 박인숙 박주영 박준건 박준용 박지혜 박철민 박출이 박희제 서은희 서영옥 서정미 성흥근
손석현 손성민 손현준 송영경 송종원 송한사 시지훈 신소린 신의식 신동조 심원준 안병덕 안병덕
안성원 안순희 양수민 오기택 오은애 오은지 오정근 오정순 오정환 원종호 유병덕 유영주 유찬민
윤동영 윤선화 윤현정 이강만 이경희 이광수 이규태 이동규 이동영 이문숙 이미정 이미희 이보경
이석중 이성환 이승현 이시완 이영호 이은경 이인숙 이인식 이정윤 이종란 이종명 이종수 이종호
이찬원 이철용 이태식 이현진 임세한 임운혁 임지예 임진아 임효혁 장 미 장원근 장은영 전일구
전태병 전현수 전해영 전홍표 정경필 정수경 정승애 정임철 정지현 정형욱 정호승 조갑자 조동오
조성수 조성억 조홍연 주재영 차용택 채홍기 최규표 최승만 최영석 최월숙 최정식 최주섭 최지연
최필종 최현우 최희정 하경도 하문주 하인주 한기명 한나진 한동욱 해양환경교육센터 허낙원
홍상희 홍선욱 홍성민 홍성진 홍원표 홍준성 황대호 황선주 황열순 황지현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SEAN)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세법 상의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후원회원 가입 및 기부를 환영합니다. OSEAN의 취지에 찬성하고 회원이 되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www.osean.net/support/support_01.php

위의 주소를 치시면 회원가입과 후원 양식이 나옵니다.

E-mail: osean@osean.net

전화: 055-649-5223 Fax: 0303-0001-4478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3-57, 다임솔카운티 101동 210호 (우53020)

회비 및 기부금 계좌: 농협 301-0051-2766-11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이 달의 해양환경 뉴스

이 달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뉴스를 소개합니다. 해양쓰레기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심만큼이나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뉴스를 소개합니다.

1. [줍in제주] 조개 대신 담배꽂초·캔..바다 풍경의 한 축이 된 쓰레기

<https://news.v.daum.net/v/20200705085510513>

[출처] 브릿지경제 노연경기자 2020.06.21

2. 남동구, 장수천 하류 부유차단막 설치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749>

[출처] 경기도민일보 이만복기자 2020-07-05

3. 해양 매립 폐기물 '수저준설토사·조개껍질류' 등 한정

<https://www.etoday.co.kr/news/view/1914103>

[출처] 이투데이 곽도훈 기자 2020-07-05

4. 코코넛, 친환경 소재로 변신...코코넛으로 해결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940>

[출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2020-07-05

5. 해변서 '평평' 쓴 폭죽...바다 오염되고, 사람까지 다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334418>

6. 금어기 유희 어선 활용...수협, 해양쓰레기 수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601032703017002>

[출처] 문화일보 박수진기자 2020-07-06

7. 해수욕장·캠핑장 인파 북적... '쓰레기' 몸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26643>

[출처]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2020-07-07

8. '플라스틱 안전지대' 과일·채소서도 미세플라스틱 나왔다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952907.html>

[출처] 한겨레 곽노필 기자 2020-07-09

이 달의 해양환경 뉴스

9. 바다에 버려진 마스크...생태계에 심각한 위협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620880434832>

[출처] 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2020-07-07

10. 태국 죽은 코끼리 배 속에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가득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2021600076?input=1195m>

[출처]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2020-07-12

11. 독도 바다에 쌓인 쓰레기 치워 '유령어업' 잡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01539.html

[출처] 조선일보 안중현기자 2020-07-14

12. 장마철 경남해안 해양쓰레기 '홍수'...8년간 8110톤 유입

<https://www.news1.kr/articles/?3995533>

[출처] news1 최대윤기자 2020-07-14

13. '줍깅' 2주 만에 또 다시 밀려온 해양쓰레기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784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출처] 오마이뉴스 이재환 2020-07-13

14. 쓰레기 빨아들이고 경로 추적... 바다 청소하는 '착한 기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19/102061089/1>

[출처]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기자 2020-07-20

15. 해수부·해양환경공단, '해변입양 사업' 새 명칭 공모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80966625836160&mediaCodeNo=257&OutLnkChk=Y>

[출처] 이데일리 한광범기자 2020-07-19

16. 환경부-수자원공사, 장마철 전국 댐 쓰레기 1만7000톤 신속 처리키로

<https://www.etnews.com/20200717000101>

[출처] etnews 이경민 기자 2020-07-17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소개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 이하 오션)은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해양수산부 등록)입니다. 오션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이자 민간 연구소입니다. 해양환경 중에서도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션은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동시에,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민과 기업 등 해양환경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션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언제나 열렬히 환영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대표 홍선욱, 연구소장 이종명

연구원 이종수, 이미정, 이은경, 정호승, 김여훈

학생 인턴 최상현, 제혜림

이사 강대석, 이인식, 시지훈, 이규태, 김기범

상임고문 김인환, 최주섭

예술 감독 김정아

교육 프로그래머 김태희, 이종호

홍보실장 정형욱

사무실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3-57, 다임솔카운티 101동 210호 (우53020)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전화번호: 055-649-5223, 5224

Fax: 0303-0001-4478

홈페이지: www.osean.net

<http://cafe.naver.com/osean>

대표 이메일: osean@osean.net

※ 오션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 뉴스레터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욱 (편집). (2020). 오늘의 해양쓰레기: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월간 뉴스레터.

통권 124호. 2020년 7월.